



대한신경외과학회
www.neurosurgery.or.kr

대한신경외과학회

소식

Vol. 23

CONTENTS

02 인사말 04 임원명단 05 학회소식 및 회무보고 10 병원소식 11 분과학회 및 지회소식 16 제2차 한국-터키신경외과 학회 참관기 17 신경병증성 통증과 뉴로매트릭스설 20 제54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일정 21 회원동정 22 Photo Report

발행인: 오석전 / 편집인: 김주승·박춘근 / 발행처: 대한신경외과학회 100-130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51 포스코 the# 오피스 B동 402호 / TEL: 02-525-7552~3 FAX: 02-525-7554

발행일: 2010년 10월 14일 / 제작: (주)엠엘커뮤니케이션 140-846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동 12-15 / TEL: 02-717-5511 FAX: 02-717-5515 / E-mail: ml@smileml.com Web: www.smileml.com



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유달리 비가 많이 내리고 다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움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한층 짙어졌음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이 풍요로운 시기,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가을에 연구하시고 경험하신 것을 토론하고, 서로간의 삶을 같이 나누며 반가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50차 추계학술대회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학회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통증”과 “치매”에 대한 두 차례 보수교육, 교육개혁을 위한 워크숍, 그리고 전공의 통합 연수교육 등 크고 작은 일들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새롭게 시작되어 앞으로 더욱더 풍요로운 결실이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에는 본 학술 프로그램의 주제를 “Neurosurgery under New Social Environment”로 하여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학의 선진화에 따른 의료인의 자세 등 하루하루 급변해 가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해 가기 위한 성찰과 변화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으며 7분의 유명 해외인사 초청특강, 세미나, 연수강좌 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있어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50차 추계학술대회가 회원님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본 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춘계학술대회를 부산에서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이끄셨으며 학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이동열 회장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회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오 석 전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 산율 증가 없이 고정된 국민 수, 이와는 다르게 대책 없이 늘어나는 의사 수, 목적에 따른 정확한 운용 관리 없이 흘러가는 의료전달체계, 경제논리에 의거한 수도 집중화 의료시스템 등 의료계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의 염려 등이 다음 세대의 의료발전에 대한 노파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무덥고 습한 여름을 지내면서도, 쉬지 않고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묵묵히 수행하고 환자진료와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쌓은 지식들을 이제 청정히 맑은 파란 청자빛 가을 하늘 아래에서 학문의 경연을 펼치는 아름다운 결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으로 학회 활동 등이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학회는 그동안 많은 회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지명도를 높이고 세계적인 학회로 발전 해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긍지와 자량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증가하는 의사 수에 따른 우리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말초 신경, 척추, 통증분야, 뇌졸중 등 기존의 진료 영역을 재확인하고 타과의 접점부위 진료영역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여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이 보수교육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그 방법이나 진료 실행에 대해 더욱 연구되고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학회 최초로 1년 차 신입 전공의들의 합동 연수교육을 합숙으로 시행하여 신경외과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1년 차 전공의들이 교류하여 전공의 상호 간에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기회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대한신경외과학회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장과 그 능력을 보여주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회원들이 그 경영과 관리능력을 인정받아 국내 굴지의 대학과 병원들에서 최고 경영자로 선택되었고, 4월에 개최된 중국신경외과학회와의 JOINT MEETING, 5월에 시행한 터키신경외과학회와의 FRIENDSHIP MEETING,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CNS 학회와의 JOINT MEETING 등은 우리 신경외과학회의 실력과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제 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WFNS) 개최 예정국으로서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이라 하겠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학회의 수준과 능력을 확인하며, 세계 속에서 의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큰 학회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아름다운 학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회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여 교제를 나누고 학문의 열정을 재충전하는 축제의 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모두를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2010년 10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이 동 열

임원명단 (2009~2010)

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임광세, 문태준, 송진언, 이인수, 김윤범, 정환영, 주정화, 최갑수, 송두호, 양승렬, 정광진, 김두원, 이기찬, 이화동, 이영우, 정상섭, 최택영, 이규장, 김승태, 이재혁, 최창락
고문	황도윤, 한대희, 유태진, 이정철, 김영수, 김국기, 조병규, 조수호, 강준기, 변박장, 김 윤, 김형동, 김문찬, 최준연, 강삼석, 정희원, 임만빈, 박상근, 윤일규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임원

이사장	최준연
이사	한대희, 김국기, 변박장, 김문찬, 조수호, 강삼석, 최선길, 김형동, 정희원, 오석진
감사	백민우, 임영진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이사장	오석전	회장	이동열
차기이사장	이규성	차기회장	이상원
상임이사	총무-김주승, 학술-정용규, 고사-김태영, 수련교육-오세문, 기획-정찬기, 재무-김오룡, 보협-임영진, 진료심사-김재홍, 법제윤리-김태영(겸임), 홍보-박준근, 국제교류-이규성, 회원관리-최후진, 전산정보-윤도훈, 의료정책-여형태, 관련학회조정-고 용, 개원의-장일태, 김문간, 특별-박관, 배학근, 송시현, 이 언, 이상원, 이정교, 정용태, 학술지편집-박정을, 교과서편집-김영준, 학회사편집-황성남		
별정직	교육제도개혁-고영초, 자보업무-김영배, 의료행위관리포럼-박상근, 재정경영-백민우, 근거중심의학-정찬기, 2013세계학회조직-정희원, 회칙개정연구-최하영, 경쟁력강화-허철		
특별위원회	정신, 이상형		
감사	강동기, 강성돈, 고 용, 고도일, 고영초, 권창영, 김강현, 김관태, 김동규, 김명식, 김문간, 김상진, 김성호, 김영배, 김영준, 김오룡, 김우경, 김인수, 김재홍, 김주승, 김진기, 김창진, 김태영, 김한규, 류재광, 박관, 박상근, 박세혁, 박정을, 박준근, 박형진, 박화성, 배학근, 백민우, 변박장, 변진수, 성주경, 송관영, 송근성, 송시현, 신용삼, 왕규창, 여형태, 염진영, 오석전, 오세문, 윤도훈, 윤수환, 이 언, 이규성, 이동열, 이무섭, 이상길, 이상근, 이상원, 이승명, 이용성, 이정교, 이재혁, 이훈경, 임영진, 장일태, 정용규, 정용태, 정의화, 정찬기, 정희원, 조규용, 조창원, 최기환, 최낙원, 최하영, 최후진, 하호균, 한종우, 허 룡, 허 철, 홍승관, 홍승철, 황성남(80명)		

상설위원회

총무위원회	김주승(위원장), 김재민(부위원장), 고현승, 공동식, 김세훈, 김진호, 박성준, 박익성, 박진규, 박화성, 손병철, 심재준, 안재성, 이기택, 장재철, 장종희, 김우경(간사)
학술위원회	정용규(위원장), 김범태(부위원장), 고도일, 김명현, 김상돈, 김성호, 김명수, 나영진, 남도현, 문병관, 박재찬, 안성기, 윤영설, 이무섭, 이상원, 이정길, 전신수, 조용은, 홍석호, 임동준(간사)
학술소위원회	김상대, 윤석만, 황선철
고시위원회	김태영(위원장), 권정택, 김근수, 김성민, 김충현, 김태선, 나영진, 민경주, 박현진, 백선하, 이정진, 이선일, 이영배, 장재철, 차승현, 허 룡, 황정현, 김대원(간사)
수련교육위원회	오세문(위원장), 김동원(부위원장), 강희인, 권도훈, 김기욱, 박윤관, 백광흠, 신형진, 염진영, 이상형, 이승명, 정 신, 허필우, 황용순, 이호국(간사)

기획위원회	정찬기(위원장)
재무위원회	김오룡(위원장), 류재광(부위원장), 강동기, 고삼규, 김재용, 백승찬, 안정용, 양승호, 정진환, 최일승, 조원호(간사)
보험위원회	임영진(위원장), 강동기·박진규(부위원장), 고준석, 김궁현, 박현진, 방재승, 삼기범, 이종오, 임병철, 정용태, 허 룡, 박봉진(간사)
진료심의위원회	김재홍(위원장), 김성민, 김성호, 문창택, 박윤관, 신용삼, 이정석, 이형중, 전상룡, 전신수, 정용태, 현동근, 홍용길
법제윤리위원회	김태영(위원장), 홍승관(부위원장), 김수환, 왕규창, 이무섭, 장진우, 최병연, 홍용길
홍보위원회	박준근(위원장), 노성우, 김대원, 김명현, 김성호, 김 영, 성우현, 이무섭, 이승명, 이영배, 이일우, 정철규, 허재택, 황장희, 이관성(간사)
국제교류위원회	이규성(위원장), 장진우(부위원장), 김승범, 김은영, 박재찬, 박정을, 유도성, 윤승환, 윤영설, 이일우, 전영일, 정 신, 조용준
회원관리위원회	최후진(위원장), 최기환(부위원장), 김 영, 박문선, 성주경, 송영진, 이상형, 이정길, 조성진, 조창원, 최병관, 하호균, 김우성(간사)
전산정보위원회	윤도훈(위원장), 김정훈(부위원장), 김선환, 박형기, 손문준, 조도상, 한동석, 현동근, 홍창기, 이 성(간사)
의료정책위원회	여형태(위원장), 박세혁(부위원장), 강재규, 김기욱, 김동석, 김동호, 김인수, 류재광, 문성근, 방인석, 신용삼, 이상명, 김대원(간사)
관련학회조정위원회	고 용(위원장), 윤영설(부위원장), 김범태, 김재홍, 유찬준, 조 준, 김승범(간사)
개원의위원회	장일태(위원장), 김문간(위원장)

별정직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박정을(위원장), 권택현, 김영규, 김영배, 김철진, 류경식, 문창택, 박세혁, 송근성, 삼기범, 오정환, 윤수환, 이무섭, 이선일, 정찬기, 주진양, 최기환, 최하영, 김상대(간사)
학회사편집위원회	황성남(위원장), 김동석, 김세훈, 문창택, 박석규, 박승원, 유 현, 이호국, 주진양, 황선철, 남택균(간사)
교과서편집위원회	김영준(위원장), 강석규, 강신혁, 공동식, 김가정, 김대원, 김동석, 김범태, 김성호, 김세훈, 김영배, 김영진, 김양만, 김충현, 김충효, 박용숙, 서의교, 유도성, 이상원, 이승환, 이영배, 이형중, 임동준, 장인복, 장철훈, 장호영, 전형준, 정 신, 장태영, 차승현, 허 룡, 현동근, 홍석호, 조준성(간사)

특별위원회

교육제도개혁위원회	고영초(위원장), 고 용, 김기욱, 김세혁, 문재곤, 박봉진, 박승원, 유 현, 윤강준, 장태안, 황선철, 성재훈(간사)
자보업무위원회	김영배(위원장), 고 용, 김근수, 박윤관, 박진규, 박찬우, 이종오, 임재현, 최현식, 한동석, 노성우(간사)
의료행위관리포럼위원회	박상근(위원장), 임영진, 정찬기(부위원장), 고영초, 김동석, 김성호, 김창현, 문창택, 박승원, 박윤관, 박현진, 백민우, 손병철, 오세문, 이정진, 이상원, 이재수, 임승철, 전상룡, 정영규, 조용은, 신준재(간사)
재정경영위원회	백민우(위원장), 이영배(부위원장), 강성돈, 고현승, 공동식, 김동석, 김태선, 문창택, 조성민, 허 룡, 허 철, 김성민(간사)
근거중심의학위원회	정찬기(위원장), 권택현, 김충효, 박봉진, 박승원, 유도성, 유 현, 이형중
2013세계학회조직위원회	정희원(위원장, 2013WFNS 회장), 고영초, 고 용, 김동호, 김문찬, 김수환, 김영배, 김오룡, 김재민, 김재홍, 김주승, 김태성, 김태영, 박관, 박상근, 박정을, 박준근, 배학근, 백민우, 송시현, 여형태, 오석진, 오세문, 왕규창, 윤도훈, 윤일규, 이정석, 이규성, 이동열, 이상원, 이상호, 이승훈, 이 언, 이일우, 이재수, 이정교, 임만빈, 임영진, 정 신, 정용규, 정용태, 정찬기, 조경기, 최낙원, 최준연, 최창화, 최하영, 최후진, 한대희, 한종우, 함인석, 허승준, 허 철, 황성남
총무간사	윤영설, 장종희, 김정은
재무간사	황정현, 임동준
학술간사	이상형, 전신수, 백광흠, 박철기, 김우경
회칙개정연구위원회	최하영(위원장), 강성돈, 김범태, 김성호, 박봉진, 손문준, 유찬준, 전신수, 차승현, 조 준(간사)
경쟁력강화위원회	허 철(위원장), 윤수환(부위원장), 고도일, 권택현, 노재섭, 송근성, 양승민, 이상형, 이정길, 장인복, 장종희, 정영규, 조용준, 현동근, 황 금(간사)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박정을(회장), 이정일(총무), 정용태(학술) (2010.03~2011.03)
뇌종양학회	정용규(회장), 김충현(총무), 이창훈(학술) (2010.07~2011.06)
뇌혈관외과학회	홍승철(회장), 김재민(총무), 허필우(학술) (2010.02~2011.02)
소아신경외과학회	왕규창(회장), 문재곤(총무), 전신수(학술) (2010.05~2011.05)
척추신경외과학회	김영배(회장), 도재원(총무), 박윤관(학술) (2010.09~2011.09)
신경손상학회	강동기(회장), 황 금(총무), 현동근(학술) (2010.06~2011.06)
뇌혈관내수술학회	신용삼(회장), 권오기(총무), 유도성(학술) (2009.12~2011.12)
노인신경외과학회	임영진(회장), 김성호(총무), 최창화(학술) (2010.02~2011.02)
신경통증학회	김상진(회장), 윤영설(총무), 김형일(학술) (2010.04~2012.04)
말초신경학회	박세혁(회장), 조용준(총무), 진동규(학술) (2008.12~2010.11)

지회

서울·경인지회	고영초(회장), 김주승(총무) (2010. 03~2011. 03)
대구·경북지회	강동기(회장), 김인수(총무) (2009. 12~2010. 12)
부산·울산·경남지회	김진기(회장), 김부성(총무) (2009. 12~2010. 12)
대전·충청지회	김관태(회장), 고현승(총무) (2010. 01~2010. 12)
호남지회	류재광(회장), 이정길(총무) (2010. 03~2011. 03)

파견대의원 및 대표

대한의학회 평의원	오석전, 이규성(교체평의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오석전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	오석전, 오세문(교체신임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의원	오석전, 이동열, 이규성, 정용규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한대희, 김문찬, 최준연, 오석전, 이규성, 박정을
아시아대중학회 대의원	한대희, 김문찬, 최준연, 오석전, 이규성, 박정을
강남삼성병원 의료인	변박장

학회소식

전공의 수련실태 조사 완료 및 2011년 학회 전공의 정원 확정

수련교육위원회 주관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의 모든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수련실태 조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2011년 병원협회 신청 전공의 수 131명 중 학회심사 시 신청 전공의수는 127명이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전공의 수련규정을 적용하여 3개의 신규병원이 통과되었으며, 1개의 심사 기준 미달병원이 있었고 증원 신청한 7개의 병원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신규병원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확정되면 확정된 인원 115명을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기로 하였다.

2010년 대한신경외과학회지 우수 논문상 수여 (기초 1편, 임상1편)

2010. 4. 8(목) - 10(토) BEXCO에서 개최되었던 제28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지 우수 논문상을 시상하였다. 대한신경외과학회지 우수 논문상은 국내 학회지의 위상 제고 및 우수 논문 게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대한신경외과학회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기초와 임상분야 논문 각각 1편씩을 선정하였다.

• 기초분야

수상자: 이정길 (전남대학교)

제 목: A mouse model of photochemically induced spinal cord injury

• 임상분야

수상자: 김대원 (원광대학교)

제 목: In Situ Floating Resin Cranioplasty for Cerebral Decompression

2010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회 포스터상 수여

2010. 4. 8(목) - 10(토) BEXCO에서 개최되었던 제28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제출된 포스터를 심사하여 가장 우수한 한 편을 선정하여 2010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상을 시상하였다.

수상자: 손병철 (가톨릭대학교)

제 목: Role of intraoperative monitoring (IOM) of evoked electromyographic signals in revision surgery of motor cortex stimulation for central pain

2009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보령제약(영어발표) 학술상 수여(기초1편, 임상1편)

2009.4.16(목)~18(토) 라마다프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되었던 제27차 춘계 학술대회 및 2009.10.14(수)~17(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었던 제49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영어 발표 세션에 발표되는 연제를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이 실제 발표를 참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우수한 발표를 한 연제를 기초, 임상 각각 1편씩 선정하여 2010년 제28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보령제약 (영어발표) 학술상을 수여하였다.

• 기초분야

수상자: 강신혁 (고려대학교)

제 목: Hypoxia-induced Stat3 activity contributes the HIF-1, VEGF, MMP2 and TWIST expression in human glioblastoma

• 임상분야

수상자: 허동화 (한림대학교)

제 목: 3D reconstruction imaging of spinal segmental arteries using spinal CT angiography and its clinical value

2010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봉생 김원묵기념 학술상 수여 (뇌혈관1편)

2010. 4. 8(목) - 10(토) BEXCO에서 개최되었던 제28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봉생 김원묵 기념 학술상을 시상하였다. 본 학술상은 2009년 춘계부터 신설되었으며 2009년 한 해 동안 Published된 뇌혈관 질환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1편을 선정하였다.

• 혈관분야

수상자: 박상규 (가톨릭대학교)

제 목: Preoperative Predictive Value of the Necessity for Anterior Clinoidectomy in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 Clipping

이사회

2010년 4월 8일(누리마루 APEC House, BEXCO)

- 인준 및 승인 건
 - 명예회장 인준 : 최창락(1994~96년도 이사장, 1940.2.11생)
 - 고문 인준 : 윤일규(2008~09년도 회장, 1950.4.14생)
 - 신입이사 승인 : 신용삼, 박세혁, 홍승철, 박정율, 고영초, 강동기, 김진기, 김관태, 류재광, 김강현, 변박장
- 3월28일(일) 제1차 통증보수교육 개최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상임이사 및 임원회

2010년 4월 8일(누리마루 APEC House, BEXCO)

- * 상임이사/임원회의
 - 선출 건 (조례의 개정은 다음 이사회 전에 검토하기로 함)
 - 고문 대상 : 윤일규(2008~9년도 회장)
 - 명예회장 대상 : 최창락(1994~96년도 이사장, 1940.2.11)
 - 전문의자격시험 문제은행 전산화에 관하여 추진하기로 결정 함
 - 신입이사추천 : 신용삼, 박세혁, 홍승철, 박정율, 고영초, 강동기, 김진기, 김관태, 류재광, 김강현, 변박장.

2010년 5월 7일(학회 회관 대회의실)

- * 상임이사회
 - 학회 사무국 명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이사, 재정경영위원장 상의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제6차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서울대 이상형교수 위촉 (임기 2010.4.27~2012.4.26)

2010년 6월 18일(학회 회관 대회의실)

- * 상임이사/임원회의
 - 이사선임 건 – 본 학회 이사직에 우리들병원 이사선임 검토 요청 응. (2010년 추계학회 이사회에서 승인 예정 임)
 - 5월 8일 1년차 신입전공의 워크숍 개최 참석인원 120명 (상록리조트, 천안)
 - 제2차 한-터키 신경외과 학술대회 참석 (2010.5.14 ~18 터키 Antalya)
 - 신입 고시이사 임명 – 김태영 교수 (임기 : 2010.6.1~2012.5.31)
 - 특별이사 임명 – 전임 고시이사 이상원 교수 (임기 : 2010.6.1~2010.10.31)
 - 서초동(구학회회관) 명의 변경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2010년 7월 16일(학회 회관 대회의실)

- * 상임이사회
 - '대한뇌종양학회 사업자등록증 신청' 관련 학회 협조 건
 - 연구재단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재단을 통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대한의학회: 2010년도 임시 평의회 참석 (7월 15일)
 - 대한의사협회 국제학술대회지원금 신청
 - 대상 :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SSPN)
 - 기획이사 임명 : 서울대 정전기 교수 (임기 : 2010년 7월 16일~10월 31일)
 - 서초동사무실 재단증여에 관련된 재정적 검토
 - *** 결정사항: 본 학회에서 임대소득이 목적이려면 학회에서 소유하겠지만 현재 학회에서 소유할 이유가 없고 재단으로 귀속시켜 재단에서 서초동회관을 매각하여 본 학회 근처에 회관 구입 후 사무실을 넓히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
 - 학회부스관련 사업자등록
 - 학회나 연구재단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재단에서 하는 경우 이익금

의 50%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는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음.

*** 결정사항: 학회에서 내는 사업자등록증은 좀 더 알아본 후 결정하자는 의견과 재단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추계학회 부스비를 재단을 통해 받자는 의견이 있었음.

2010년 9월 3일(학회 회관 대회의실)

- * 상임이사회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국제학회(2010 Asia spine jointly with KJCSS) 지원금 신청-500만원 지급
 -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및 기부에 관한 규정 결의 함
 - 8월 22일(일) 제2차 치매보수교육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침-약 350명 참석
 - 대한의학회-국내 전문인력 자격 인정제도에 대한 의견조사로 본 학회 이사님께 설문지 의견 요청하여 의견수렴 함

각 위원회 중요 활동 사항

총무위원회

- 부산관광컨벤션뷰로에서 추계학회 지원금 50만원 수령
-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참가지원자 선정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내 학술대회 지원금 1800만원 수령
- 2010년 제50차 추계학술대회 준비 및 운영
 - : 전야제와 운동(골프,테니스,축구) 공식 프로그램에서 제외, 워크숍 할 경우 외부(대학)에 장소 대여하기로 함.

학술위원회

- 2010년 6월 3일, 2010 8월 23일 학술위원회 개최
- 2010년 제50차 추계학술대회 초록접수, 심사 및 프로그램 확정
 - 전체 383 구연연제 중 224연제 (국문 156, 영문 68)
 - 주요 연제 (8개) 및 토론자
 - 런천세미나 및 심포지움, 해외초청연자 (7명)
- 2010년도 신경외과 전공의 통합연수강좌 프로그램 확정 및 진행
 - 프로그램 및 연자 확정
 - 각 분과학회장 격려사 – 분과
 - 학술위원회 각 분과위원들이 연수교육 진행

날 짜	장 소	분 과
1차 2010/9/4-5	한양대	척추, 외상, 말초
2차 2010/10/2-3	대전 을지대	종양, 소아
3차 2010/10/30-31	한양대	정위, 노인, 통증
4차 2010/11/6-7	대전 을지대	혈관, 혈관내

고시위원회

- 54회 전문의 시험 문제 정리 작업 완료 (대한의사협회 주관)
 - 일시 : 2010년 7월 6일(화) – 9일(금)
 - 장소 : 양평 한화 콘도
 - 보유 문제수(3860문제) : 주관식 1002, 객관식 2858 (정리작업 전 문제수 4291)
- 전문의자격시험 전산화 프로그램 계약에 관한 건
- * 계약금 지급 : 총 11,000,000원 중 5,000,000원 지급 완료
- * 서버용 컴퓨터 비용 5,302,000원 지급 예정
- * 전산화작업 11월까지 완료 예정 (전산화 할 문제 수: 3860문제)

- 총 27일 +@ (주말, 추석, 추계학회 기간 제외), 143문제/일
- 채용직원 : 2명 (사급 4~5천원 +@ 8시간/일) → 200~250만원
- 제54회 전문의고시 필기시험 문제 의뢰 (대신외 10~306호)
 - 각 분과학회에 추천받은 교수님께 교과서 chapter별로 객관식 5문제, 주관식 2문제.
- 추계학회 기간 중 전공의 4년차를 위한 모의시험 시행
 - 출제계획 : 50문항 출제 예정
 - 대신외 10~305호 : 홈페이지 공지 및 수련병원 의국 우편발송
 - 일시 : 2010년 10월 16일(토) 오전 9시 20분~10시 20분
 - 장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Room A,B,C

수련교육위원회

- 5월8일~9일 양일간 교육제도개혁위원회 주관 하에 대한신경외과학회 신임 (1년차) 전공의 워크숍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함.
- 6월16일 2010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 회의 수련교육이사가 이사장님 대신하여 참석함.

[주요 회의내용]

- 2011년 전공의 정원책정 추진계획: 정원감축 목표를 기초로 할 예정임.
- 2010년 : 의대 졸업생 3223명, 인턴 정원 3853명, 레지던트 정원 4065명
- 보건복지부 의견 : 육성지원과목(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총 10개 과목) 이외에는 정원감축을 기초로 함. 기존 정원 감축, 신규 신청 정원 감축, 지원실적 참조하여 신임실행위원회 및 관련학회와 상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8월 18일 수련교육위원회 회의를 갖고 2010년 7월 중 수련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수련교육병원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2009년 9월 3일 상임이사회의에서 보고하였고 의결안건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토의 후 의결함.

[보고사항]

- 87개 병원 조사 (61명의 심사위원이 심사) : 지도전문의 결원은 없었음.
- 전공의 신규 신청 병원 (7개 병원) : 3개 병원 심사기준 통과, 4개 병원 심사기준 미달
- 전공의 증원 신청 병원
 - 1)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신청 병원 5개 병원 모두 심사기준 통과함.
 - 2)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신청 병원 2개 병원 중 1개 병원만 심사기준 통과함.
- 기존 수련병원 중 심사기준 미달 병원 1개 병원
- 전년도 심사에서 기준 미달이었던 1개 병원 심사기준 통과함.

[의결사항]

- 신규신청 병원 중 심사기준 통과한 3개 병원에 대한 심사내용은 대한의학회와 병협신임위원회에 신규신청 동의 의견 붙여 제출하기로 하고 추계 이사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증원신청은 인정하지 않기로 함
- 기준 미달 1개 수련병원 심사내용 대한의학회와 병협신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8월20일 대한의학회 주최로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수련교육이사 워크숍이 있었고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오세문 위원장, 김기국 위원, 이호국 간사가 참석함.

재무위원회

- 매월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
- 학회 통장 잔액 중 3억원에 대하여 정기예금(1년)으로 보관 중

보험위원회

•행위 정의 관련

기존에 구축된 의료 행위 정의와 관련하여 '시술중 시간'에 대한 학회 제출 자료가 부정확한 면이 많아, 2007년도 마취과에서 제출한 마취 시간 자료에 준하여 시술중 시간을 수정하고, 분당 의사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수술에 대하여 의사업무량을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신경외과 는 해당 156개 수술과 관련된 작업을 완료하였음.

•수술에 대한 직접비용 실시 실시

저평가되어 있는 수술 수가와 관련하여 신경외과에서는 모두 12개의 수술 행위에 대하여 다빈도 의료기관을 2개씩 선정하여 실사를 실시하였음. 실사 당시 신경외과(주진료과)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 타과(정형외과), 타과2(마취과, 흉부외과) 의사가 포함되어, 주진료 의사의 업무량을 제외한 인력(보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방사선사), 진료 재료 및 장비등에 대한 실사를 시행하였음.

신경외과 해당 수술은

- 1) 경피적 척추 및 척수 수술 :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포함)-제1부위
- 2) 골건인술 : 골건인술(두개골)
- 3) 뇌 및 뇌신경 수술 :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천막상부)-단순
- 4) 뇌내시경 수술 : 뇌내시경수술-개창술
- 5)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뇌실과 타부위간
- 6) 두개골수술 :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경막하 혹은 경막외
- 7) 두개내 혈관 수술 : 혈종제거를위한개두술-뇌실질내
- 8) 중추신경계 정위수술 : 중추신경계정위수술-생검,흡인,병소절제,혈종제거
- 9) 척수 및 척추신경 수술 : 척수경막외종양및병소절제술[요추]-척추경 또는 척추체를포함하지 아니한경우
- 10)천두술 : 천두술(농종, 혈종, 농양의 제거 및 배액)-뇌실질내
- 11) 추간판 제거술 :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요추
경희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 12)척추고정술 :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 고정 포함)-후방고정 요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추구 평가

- 1) 대상 수술 : 개두술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종양 절제를 위한 개두술, 뇌동맥류수술, 뇌동정맥기형적출술, 두개강내혈관문합술, 뇌엽절단술, 뇌엽절제술, 두개강내뇌신경수술)
- 2) 대상 기간 : 평가 대상 기간은 2010년 10월 ~ 12월(3개월) 입원 진료분
- 3) 대상 기관 : 평가대상 수술이 청구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중 평가대상 수술이 최소 10건 이상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4) 평가 지표

구분	지표명	기존 8개 수술		신규 3개 수술	
예방적 항생제	최초 투여시기	○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 (녹내장 수술 제외)	
	항생제 선택	○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		○	
		○ 3세대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		○	
		○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		○	
관련 지표	투여 기간	○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	
		○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 일수(병원 내 투여+퇴원처방)		○	
	기록	○ 항생제 알러지 기왕력 기록률		○	
		○ ASA class 기록률		○	

5) 제외 기준

구 분		제외기준	지표 산출
공 통 제 외 기 준	수술 전 환자 상태	- 18세 미만의 환자	모든 지표 산출 제외
		- 전원 온 환자	
		- 수술 전 24시간 이내 38℃ 이상 발열이 있었던 환자	
		- 입원 시 감염과 관련된 진단명이 있었던 환자	
		- ASA Score Class 4 이상인 환자	
	수술 관련 상 태	- 응급수술	
수술별 제 외 기 준	수술 후 환자 상태	- 수술 3일째(POD #3)부터 38℃ 이상 발열이 있었던 환자	항생제 선택 및 투여기간 산출제외
		-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한 환자	
		- 수술 후 감염 상병이 발생한 환자	
		-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혈액을 4 pint 이상 수혈한 환자 (단, 심장수술은 7 pint 이상)	
		- 과거 개두술을 받은 경우	
	수술 관련 상태	- 부비동이 개방된 경우	모든 지표 산출 제외
	수술 후 환자상태	- 수술 후 두개내압 모니터링 사용하는 경우	투여 기간 산출 제외
		- 수술 후 CSF leakage 있는 경우	(나머지 지표는 산출)
		- EVD 카테터를 사용한 경우	

국제교류위원회

- San Francisco 2010 CNS-KNS joint meeting 개최예정 (날짜: 2010년 10월 16일-21일)
 - 런천세미나 연자 34명, 전공의 30명 중 24개 연제 발표
 - 전공의 등록비 면제, 여비는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보조하는 걸로 결정되었다.

진료심의위원회

- 2010년 4월 2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의뢰 및 회신 건수입니다.

의뢰건	회신건 - 23
척 추 - 2	
혈 관 - 4	
외 상 - 2	
종 양 - 1	
소 아 - 1	
말 초 - 2	
통 증 - 2	
기 타 - 2	
합 계 16	

- * 바쁘신 중에도 복잡한 질의내용에 회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사안 감정의 업무 개선 (2010.8.1 시행)
 - 1) 의협 의료감정실무위원회는 감정학회 분류, 일반감정의 감정여부 결정
 - 2) 학회진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협에 감정은 추천(인적사항 포함)
 - 3) 의협은 감정자료를 감정위원회에 직접 송부

- 4) 감정위원회는 감정결과 및 자료를 학회(진료심의위원회)로 송부

- 5) 학회(진료심의위원회)는 감정결과를 확인 검토 후 의협으로 감정결과와 자료 회신

특별위원회

- 2010년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선정 - 총 42개의 논문 중 우수 논문 9개를 선정. (심사위원은 현 회장, 전임회장, 학술위원장, 학술지편집위원장과 분과학회 회장으로 구성)
-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선정 위원회 구성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선정에 관한 내용]

- 2010년 9월 1일부터는 개정된 공정위 규약에 의거하여 제약사가 제약협회 혹은 다국적 제약산업 협회에 특정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고 무기명 기부/후원을 신청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약협회에서는 관련 학술단체 (예를 들면 대한신경외과학회)에 참가지원자 선정을 의뢰하기로 함.
-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선정 위원회를 2010년 9월 3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새롭게 구성, 향후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신청을 받기로 하였음.
- 후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학술대회가 개최되기 2개월 전후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자 지원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참가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학회로 지원. 참가자 지원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 을 통하여 7일간 모집을 함. (향후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자 선정 기준은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며, 신청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함

[심사기준]

1. 발표 내용의 학술적 가치
2. 발표 내용의 해당분야 연구발전에의 기여도
3. 신청자의 해당 분야 연구 실적
4. 신청자의 해당 분야의 진료, 교육, 대국민 계몽을 위한 기여도

학술지편집위원회

- 최초로 SCIE Impact Factor 발표됨(0.155: 2010년 6월)
- 2010년 제1차 학술지편집위원회 연수교육 시행 (4월 8일)
- 2010년 제2차 학술지편집위원회 연수교육 예정 (11월19일): 신임 심사자 위촉장 수여식 및 우수 심사자 시상식 겸
- Google Scholar 등재 신청 완료
- Kim Pyo 교수 (일본 독협의학대), Lenz 교수(미국 John's Hopkins대), 및 S. Oi 교수(일본)를 International Editor로 위촉하기로 결정됨
- 심사위원 교체(25명) 및 추가 예정(20-30명)
- 한국연구재단 2010년도 국제학술지 계속평가 지원금 신청 완료 (8/31): (5000만원 지원 신청: 2009년 3000만원 지원 수령)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0년도 국제학술지 지원금 신청 완료 (9/10): (3000만원 지원 신청: 2009년 1000만원 지원 수령)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년도 학회 정보화 지원금 신청 완료 (9/30): (100만원 지원 신청: 2009년 지원 없음)
- 2011년 4년차 전공의 논문 접수 마감일을 논문 접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2011년 2월25일(2010년에는 4월30일)로 결정함

학회사편찬위원회

- 대한신경외과학회 50년사 발간 자료수집 협조 요청
- 각 교실 및 회원께서 발간하신 책자수집 협조 요청

교과서편찬위원회

- 4차례 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1/21, 4/10, 6/25, 8/11)
 - 총론, 뇌혈관(혈관내수술), 뇌종양, 신경손상, 척추, 소아, 기능 등 7(8)개 세부 분야 책임위원 및 실행위원 선정하여 집필진 선정 및 chapter, 내용 조율

[결정사항]

1. 4판 교과서의 대상, 수준, reference 결정 (3판과 같이 도해를 많이 이용하며 의대 학생, 전공의, 기타 전문직 일반인을 대상으로)
2. Patient Guideline, 경쟁력강화 7개 부문, 장애인단서를 추가하고 집필을 경쟁력 강화위원회와 연동
3. 교과서의 내용, 분량을 각 분야 별로 정한 후, 중앙에서 다시 조율하기로 결정
4. 타임-테이블을 발표한 후 올해 말까지는 저자에게 집필 의뢰를 완료하기로 결정

[향후 진행사항]

1. 각 분야별로 신청한 저자명단을 최종 결정 (9월 말까지)
2. 내년 1월 말까지 집필 완료 후, 내년 9월 이전에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예정
3. 2012년 추계학술대회 이전에 4판 교과서 발간을 목표로 함

교육제도개혁위원회

- 2010 전공의 1년차 워크샵 개최
 - 일시 : 2010년 5월 8일 (토) – 9일 (일)
 - 장소 :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 리조트 (충남 천안시 소재)
 - 목적 : 신경외과 소개, 교육 목표와 연차별 교육내용 제시, 신경외과의사로서 자긍심과 연대감 고취 및 동년배 간의 유대강화
 - 결과 및 평가 : 처음 기대 반 우려반으로 시작한 전공의 1년차 워크샵이 설문 조사와 각 교실의 자체 참여 후 소감 등을 통해 본 결과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할 수 있어 향후 지속적인 워크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조직위원회

1. 준비회의
 - 운영위원회
 - 격월 정기 개최
 - 대회 준비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학술위원회 프로그램 구성 제안 건 협의
 - 학술위원회
 - 격월 개최
 - 2001년 대회부터 전차 대회 학술 프로그램 분석, WFNS2013 학술 기본 구성 방향 수립, 운영위 제안
2. 신규 포스터 제작
 - 2종의 신규 포스터 제작
 - 대회 홈페이지 www.wfns2013.org 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3. 해외 후원 업체 안내문 제작
 - 해외 major 사 접촉 시 필요한, 후원 안내문 제작
 - 이규성 사무총장 독일 학회 참석 시, 업체 미팅/배포
4. ASNO 2010에서 대회 홍보
 - 6월 개최된 ASNO 2010 Gala Dinner 시, WFNS2013 홍보 슬라이드 상영

경쟁력강화위원회

- 경쟁력강화 제1차 치매보수교육위원회
(2010년 5월 10일 (월) 18시 30분, 학회회관 대회의실)
- 통증보수교육 보고회
(2010년 5월 12일 (수) 18시 30분, 학회회관 대회의실)
 - 2010년 3월 28일 (일) 한양대학교 HIT빌딩 6층 대강당에서 시행하였던 급성 및 만성 통증, 통증 관련 신경차단 / 발통점주사 보수교육 보고
 - 보수교육 강의 수강 등록자, 총인원 360
 - 보수교육 실습 참여 예정자, 총인원 134(연인원 184)
실기 교육 지정 병원 : 7, 2010년 5월 10일 ~ 2010년 7월 31일
- 경쟁력강화 제2차 치매보수교육위원회
(2010년 6월 7일 (월) 18시 30분, 학회회관 대회의실)
- 통증 실기 교육 지정 병원에 보수교육 지정 인준 현판을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님과 회장님 대행하여 전달(2010년 5월25일~2010년 6월 12일)
- 경쟁력강화 제3차 치매보수교육위원회
(2010년 8월 3일 (화) 18시 30분, 학회회관 대회의실)
- 2010년도 제3차 경쟁력강화위원회
(2010년 8월 12일 (목) 18시, 학회회관 소회의실)
치매보수교육 진행 및 지원, 향후 보수교육의 방향
- 경쟁력강화 제4차 치매보수교육위원회
(2010년 8월 17일 (화) 18시 30분, 학회회관 대회의실)
- 2010년도 대한신경외과학회 치매 보수교육 실시
 - 2010년 8월 22일 (일), 한양대학교 HIT빌딩 6층 대강당
 - 보수교육 강의 수강 등록자, 총인원 326
- 경쟁력강화 제4차 경쟁력강화위원회
(2010년 9월 29일 (수) 18시, 학회회관 대회의실)
경쟁력으로서의 보수교육 – 현재 및 미래

병원소식

가톨릭대

•가족과 함께하는 뇌종양이야기

서울성모병원 뇌종양센터(센터장 홍용길)는 지난 7월 23일 서울성모병원 지하층 대강당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뇌종양 이야기"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좌는 뇌종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약제부, 사회사업팀, 영양팀에서 뇌종양 치료법만 아니라 뇌종양 환자들과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등으로 뇌종양에 대한 정확한 설명,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는 절차, 약물요법, 새로운 방사선 치료요법, 영양관리 등으로 이루어졌다.



•2010 메디컬코리아 2년 연속 대상-뇌졸중 전용 응급센터 24시간 진료
서울성모병원 뇌졸중센터(센터장 신용삼)는 2010 메디컬코리아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다. 신속함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뇌졸중 및 관련 질환의 진료를 위해 24시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선 뇌졸중 환자만을 위한 외래 진료 창구를 개설, 빠른 진료가 가능한 치료환경을 마련했다.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로 구성된 전문 진료팀과 전담 코디네이터, 영양팀 등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환자를 치료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 5회 뇌(혈관)수술 환자와 가족을 위한 모임

(일시 및 장소: 5월 6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의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개원 후부터 신경외과에서 치료 받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모임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고 금년으로 5번째를 맞게 되었다. 환자와 가족들과의 공감대를 이뤄서 의견을 교환하였고 신경과, 순환기내과, 재활의학과 교수들의 특강과 함께 신경외과 주치의사와 환자와 소통을 이룬 뜻 있는 모임이었다(사진). 특히 본 모임의 회장단이 구성되고 인터넷 환자



동호회가 발족되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환자들과 주치의 사이에 교감을 나누는 점차 발전된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입국식 및 개원의 연수 강좌

(일시 및 장소: 6월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입국식 및 개원의 연수 강좌가 2010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교실원 및 동문들에게 신입 1년차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는 입국식 행사가 있었고, 이어서 개원의를 위한 동문 연수 강좌가 많은 선후배 동문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박진규 병원장배 골프대회

(일시 및 장소: 8월 27일 안성컨트리클럽)

본 교실 출신인 박진규 동문의 주최로 매년 거행되는 동문 골프 모임이 있었다. 예년의 초복에 시행되어온 본 행사는 금년으로 10번째를 맞이하였다. 모두 3팀이 참여한 심페리얼 방식으로 진행된 골프대회에서 행운의 우승은 92타를 기록한 김범태 동문이 차지했다. 저녁 식사모임은 평택의 한옥식당에서 열렸고 원로 교수이신 이인수 선생님이 건강한 모습로 참여하셨으며 많은 원내외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즐거운 모임이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제 4회 청송 심재홍 교수 추모 심포지움

일시: 2010년 6월 5일 (토) 오후 2:00~5:05 장소: 부산백병원 인제의학대 1층 강당



인제대

•JCI 인증 획득(2010.7.21)

국립중앙의료원

•뇌-심혈관 질환 심포지움 개최. (좌장: 한대희)

주제: 뇌-심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분과학회 및 지회소식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1) 2010년 1월 29일 소아뇌종양 동계 Workshop이 소아뇌종양학회와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합동으로 서울성모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Symposium으로 소아 Glioma에 대한 최신 지견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증례중심의 자유연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소아신경외과에서 6개의 연제가 발표되었습니다.

2) 2010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터키 Antalya에서 열린 유럽 소아신경외과학회에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을 초청하였습니다. 학술대회 도중에(4월 24일)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와의 joint session을 마련해주었습니다. Germ cell tumor 대하여 김동성, 신형진, 왕규창 교수님들의 연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3) 5월 7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초청 연자로 터키 Mutluer 교수, 일본 Yamasaki 교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소아신경외과 연구회 시절부터 학회 설립과 학회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서울대학교 조병규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한 학술대회로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기념 만찬행사도 가져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4) 일본소아신경외과학회가 6월 3-5일 일본 Toyama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대한신경외과와 학술 교류를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일본에서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회원 분들을 초청하는 기회였습니다. 일본소아신경외과 학술대회 중에(6월 4일) joint session을 마련하여 대한소아신경외과 학회 회원의 MMD, craniopharyngioma에 관한 발표와 case discussions 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5) 소아신경외과학회 임원 개선

2010-2011년 대한 소아신경외과학회 임원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왕규창 교수님을 회장으로 하여 2010. 10월 말과 11월 초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소아신경외과학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국제적인 역할의 증대를 위하여 임원들의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차기회장으로는 아주대 강재규 교수, 국제교류에 전 회장인 성균관대 신형진 교수, 국제학회 총무와 학술 및 재무에 연세대 김동성 교수와 울산대 나영신 교수, 그리고 고려대 박정울 교수가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와 학술에는 한림대 문재곤 교수, 가톨릭대 전신수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2010년 8월 24일 신임임원들의 첫 상임이사회 겸 상건례가 있었고, 향후 일년 간의 학회 활동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6) 9월 30일 제주에서 대한 소아신경외과 정기 증례토론회가 열립니다. 증례토론회는 2010 ISPN 의 준비모임도 겸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현지답사와 여행연습을 합니다.

7)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주에서 국제소아신경외과학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소아신경외과의 명실상부한 세계학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0ISPN 준비위원회가 몇 년 전부터 조직되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내외의 신경외과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이 요망됩니다. 10월 30일(토)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모야모야병 저명인사들이 모여 심포지움(참가비 5만원)을 개최합니다. 뇌혈관질환에 관심 있으신 국내신경외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8)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소아신경외과 교과서가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간행 이사 박정울 선생님의 열정으로 대부분의 원고가 접수되어 마지막 review 중이며, 2010년 추계학회에 맞추어 새로운 교과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9) 향후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일정

2010년 11월 26일 진주에서 증례토론회

2011년 2월 소아 뇌종양 동계 워크샵

2011년 5월 20-21일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겸 일본소아신경외과학회와의 Joint Session

대한뇌종양학회

(1) 2010. 05. 28

대한뇌종양학회 2009-2010 제2차 증례집담회가 국립암센터 연구동 1층 강당에서 오후 5시에 개최되었다.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8례의 증례가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집담회 후에는 일산의 미송플러스 식당에서 개인적 토론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연제 및 연자

1. Atypical central neurocytoma 설호준 (성균관대 삼성 서울병원)
2. A case with cerebellopontine angle mass 조영현 (울산대 서울 아산병원)
3. Intracerebral embryonal rhabdomyosarcoma as a recurrent intracerebral hematoma 이채혁 (일산 백병원)
4. Destructive mass on C1-2 spine (malignant tumor vs. Grisel's syndrome) 김익현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5. Type C, jugular foramen schwannoma 정철구 (건양대)
6. Extraventricular ependymoma 배정식 (가톨릭대)
7. A case of angiosarcoma 이승은/ 권정택 (중앙대병원)
8. Mesenchymal chondrosarcoma of orbit wall compressing optic nerve 김재용 (분당 서울대병원)

(2) 2010년 6월 10일 ~ 12일

The 7th Meeting of Asian Society for Neuro-Oncology(ASNO)가 대한뇌종양학회 주관으로 서울 JW Marriott Hotel에서 제20차 대한뇌종양학회, 제4차 한-중 신경종양학회, 제9차 소아뇌종양학회 정기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었다. 아시아권을 포함하여 총 21개국에서 373명이 등록하였으며, 216명이 발표를 하였다. 국가별 발표 연제 수는 한국 89편, 일본 60편, 중국 40편, 타이완 8편, 미국 5편, 홍콩 4편 등이었고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도 각각 1편의 연제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2개의 주요연제 부문에서 11명의 연자가 발표를 하였고, 18개의 심포지움 부문에서 16편, 4개의 중식 세미나 부문에서 10편, 8개의 전문가와의 만남 부문에서 20편, 1개의 임상시험 부문에서 6편의 논문을 포함한 총 152편의 발표가 있었다. 한편, 포스터 발표는 5개국에서 64편이 발표되었다. 특히, 중식세미나 부문에서는 'Best evidence on glioma treatment'에 175명, 'Integrins- a relevant target for glioblastoma multiforme'에 169명이 참가하여 뇌교세포종의 치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제8차 ASNO학회는



중국의 소주에서 2011.05.26-2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3) 2010. 09. 07

대한뇌종양학회 2010-2011 제1차 중례집담회가 서울성모병원 지하층 강당에서 오후 5시에 개최되었다.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6례의 중례가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집담회 후에는 인근의 한국회관식당에서 개인적 토론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연제 및 연자:

1. Unusual lesions of sellar area
전신수 -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2. Bony destructive lesion in clivus
조진모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3. Malignant glioneuronal tumor
김해유 -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4. A large dumbbell tumor of the tentorium in a 63-year-old woman
노영준 - 건국대학교병원
5. Unexpected massive hemorrhage occurrence with swelling immediately after removal of large clinoidal meningioma
이승환 - 경희대학교병원
6. A case of fibrous dysplasia
이정섭 - 중앙대학교병원



- 임원 개선 : 제21대 대한뇌종양학회 임원

2010.07.13일 오후 5시, 서울역에 위치한 이즈미 식당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대 대한뇌종양학회의 신임 상임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4명의 특별위원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상임위원장에 임명장이 수여되었는데 신임 상임위원으로는 김정훈(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전신수(가톨릭대) 및 박봉진(경희대) 교수 등이 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회장:정용구(고려대)

차기회장:홍용길(가톨릭대)

차차기 회장:김오룡(영남대)

상임위원

총무위원 : 김충현(한양대), 학술교육위원 : 이창훈(원자력의학원), 재무위원 : 차승현(부산대), 국제교류위원 : 정철구(건양대), 지명위원 : 김태영(원광대), 회원관리위원 : 김창진(울산대), 기획위원 : 정진명(경상대), 홍보위원 : 최하영(전북대), 뇌종양등록위원 : 김영규(충북대), 화칙위원 : 백선하(서울대), 간행위원 : 이선일(인제대), 의료정보위원 : 김선호(연세대), 보험위원 : 강동기(대구파티마병원), 진료심의위원 : 김주승(울지대), 연구위원 : 정 신(전남대), 역사위원 : 박관(성균관대), 다기관임상시험위원 : 김정훈(울산대), 특별위원 : 송시현(충남대), 손은익(계명대), 서의교(이화대), 이승훈(국립암센터), 박봉진(경희대)

감 사 : 권정택(중앙대), 전신수(가톨릭대)

한편, 운영위원회는 각 수련기관별로 조정하여 총 56명으로 구성하였다.

- 기타

제7차 ASNO해단식:

2010.07.22일 오쿠드호텔의 중식당 용궁에서 제7차 ASNO 준비위원회의 해

단식을 가졌다. 조경기(아주대) 회장의 인사, 홍용길(가톨릭대) 학술위원장 및 정용구(고려대) 사무총장의 경과 보고에 이어 최길수 명예회장님께서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해 주셨다.

대한뇌종양학회 간행위원회 워크숍:

대한뇌종양학회의 간행위원회 (위원장: 이선일 교수)는 2010. 09. 10일 오후 5시 해운대 백병원 감마나이프 센터 세미나실에서 대한뇌종양학회지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특별히 대한신경외과학회 편집위원장이신 박정률 교수가 참석하여 학술진흥재단 및 세계저명학술지 등재를 위한 제언을 해 주셨다.

연제 및 연자

1. 간행위원장 인사말
이선일 - 인제대, 대한뇌종양학회 간행위원장
2. 격려사
김충현 - 한양대, 대한뇌종양학회 총무이사
3. 세계저명학술지 등재를 위한 제언
박정률 - 고려대, 대한신경외과학회지 편집위원장
4. 학술지 논문 심사 요령
김세혁 - 아주대, 대한뇌종양학회지 간행위원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2011년 3월 19일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개최 예정

허 곤 학술상

-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원이 발표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실린 정위기능분야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함.

발표 및 시상은 정위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함.

통증 워크숍 개최 - 2011년 1월 30일 예정

1. 학회 홈페이지 개설 - 10월 13일까지 open 예정으로 홈페이지 구축작업 진행중임.
2. "정위기능신경외과학" 출판 (대표저자-분당차의과학대 정상섭 교수) 및 출판기념회 (2010년 9월 10일 연세대 알렌관)
3. 정위기능신경외과학 교과서 (편집위원장 한양대 김영수교수) 추계학회에 맞추어 출판 및 학회기간 중 판매 예정
11월 8일 출판기념회 개최예정

대한신경손상학회

1. 대한신경손상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2010년 5월 15일에 대한 신경손상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신경계 중환자간호사 연수교육이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개최되었고 400여명에 달하는 많은 회원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예년과 달리 신경외과 중환자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인력과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마련 되었으며 오전에는 중증신경손상 환자에서 뇌압관리와 신경손상의 재활치료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마련하였으며 기초분야에서 한양대의 박장환 교수님과 고려의대 고영학 교수님을 모시고 신경손상에 대한 최신지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 새로운 임원진 구성

정기 학술대회 중 열린 정기 총회에서 강동기교수(대구파티마)가 대한 신경손상학회 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차기 회장으로 이무섭 교수(충북대), 부회장에 황금 교수(원주의대)가 선임되었습니다.

3. 워크숍

신경손상에 대한 회원들간의 학문적인 이해를 높이고, 친선을 돈독히 하기 위한 워크숍이 7월 9일과 9월 3일 두차례 있었습니다. 전임회장님들을 모시고 많은 상임이사들이 참석하여 더욱 발전하는 신경손상학회가 되기 위해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려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12월에 송년회 개최 및 2011년 1월에 동계워크숍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4. 대한 신경손상학회 데이터뱅크위원회

2010년 8월 17일 신경손상학회 데이터뱅크 위원회가 학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단국대학교 이상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전국의 82개 수련기관 중 20여개의 기관에서 참여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2개월간의 PILOT STUDY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신경손상에 대한 최초의 전국적인 STUDY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 ~ 2011 년 상임이사진 명단

회장	강동기	대구파티마
차기회장	이무섭	충북의대
총무	황금	원주의대
총무간사	정제훈	한림대 한강성심
학술	현동근	인하의대
학술간사	장인복	한림의대 평촌
재무	전상룡	울산의대 서울
회원관리	김인수	계명대의대
보험	김궁년	연세의대
간행	권택현	고려의대
간행간사	김종현	고려의대
수련교육	조용준	한림의대 춘천

대외협력

국제화추진

역사

기획-뇌분과

기획-척추분과

정신의학분과

재활의학분과

기초의학분과

홍보

전산정보

법제

개원의

개원의

무임소

무임소

장해판정위원

신경손상데이터뱅크

정보

감사

조병문

유도성

정진환

박승원

송근성

박기창

정한영

윤영욱

박종태

이정길

염진영

황장희

강병직

심기범

허원

가천이상구

단국이상구

김세혁

문승명

한림의대 강동성심

카톨릭의대

한양의대 구리병원

중앙의대 용산병원

부산의대

원주의대

인하의대

고려의대

원광의대

전남의대

충남의대

월스기념병원

김천제일병원

제주의대

부산보훈병원

가천의대

단국의대

아주의대

한림의대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1.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2차 연수교육 개최(2010년 8월 26일)

2.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상임운영위원회 개최

2차 상임운영위원회 4월 26일

3차 상임운영위원회 6월 14일

4차 상임운영위원회 8월 6일

5차 상임운영위원회 8월 26일

3. 신임 상임운영위원 선임

홍보 이상형(서울대보라매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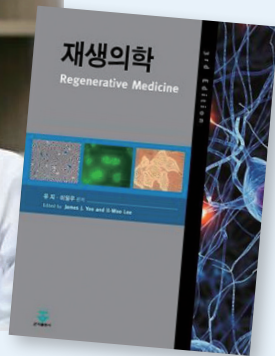
특별 박인성(경상대병원)

‘정위기능신경외과학’ 출판기념회

정상섭 교수님 (CHA의과학대학 신경외과 주임교수) ‘정위기능신경외과학’ 출판을 기념하여 2010년 9월 10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신경외과 이일우 교수 ‘재생의학’ 교과서 발간



가톨릭 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이일우 교수는 미국 Wake Forest 대학의 James Yoo 교수와 함께 2010년 6월 ‘재생의학’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재생의학이란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치병들을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의학연구의 한 분야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인공장기, 줄기세포, 생체재료, 나노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재생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 110 여명이 저자로 참여한 본 책자는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21세기 우리나라 성장동력이 될 생명공학 육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과 2002년에 James Yoo 교수와 함께 ‘생체조직공학’, ‘조직공학과 재생의학’이라는 2권의 책을 펴낸바 있는 이일우 교수는 2009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 조직공학 재생의학 학술대회의 학술위원장을 역임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올해 6월 한국 조직공학 재생의학회의 차기회장으로 선임 되었다.

‘Surgical Atlas of Spine’ 발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에서 2010. 9. 9에 ‘Surgical Atlas of Spine’을 발간하였습니다.

영문판으로 발간하여 국내외 척추 수술을 전공하는 의사 및 외국 수출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13대 여환 회장님 임기에 시작, 2년의 시간이 경과된 14대 임승철 회장님 임기에 출판하였습니다.

교과서 편찬위원장 장호열(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임상교수와 17명의 편찬위원, 그리고 총 122명의 저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총 59 chapter, 53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edical illustration은 Medart 사에서 담당하였고, 출판은 군자출판사에서 하였습니다.

그림과 책의 내용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하며, 세계적으로 best seller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대한신경외과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의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한국-터키신경외과 학회 참관기

김 범 태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위원)

2010년 5월 15-17일까지 터키 안탈라에서 거행된 제24차 터키신경외과학회 겸 제2차 한국-터키 신경외과학회에 한국에서 4명의 대표와 20명의 회원이 초청되어 참가하였다. 이는 제48차 대한신경외과 추계학회 때 초청되었던 터키 신경외과 학회 Beşkonaklı 학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로는 오석진 이사장님, 이동열 회장님, 이규성 차기이사장님, 이상원 차기회장님과 함께 한국의 20명 회원이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회의 장소는 터키 제3의 도시로 터키의 오랜 역사와 함께 미래의 발전을 함께한 유럽과 아시아 문명이 교류하는 곳이며 주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인구 400만명 정도의 도시 안탈라였다. 안탈라는 지중해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 태양, 역사,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해안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학회장에서 논문 발표후, 터키학회 임원진들과 함께 (필자-오른쪽 첫번째, 이수빈교수-오른쪽 두번째, 박익성교수-왼쪽 세번째)

터키신경외과 학회는 1985년에 창설되어 올해로 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한 신경외과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정회원이 약 1200명 정도이고 수련과정은 5년이라고 한다. 이번 학회에 초청된 외국연자로는 세

계신경외과회장인 미국 보스턴의 Peter Black과 한국의 신경외과 책임자였고, 학회는 기간 중 하루 종일 2개의 방에서 터키어로 진행되었다. 제2차 한국-터키 신경외과학회는 한국의 오석진 이사장과 터키의 Beşkonaklı 학회장이 함께 5월 16일 온종일을 할애하여 양국에서 약 30여명이 영어로 발표하는 학술대회로 진행되었다. 오전 일찍부터 발표는 양국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이동열회장께서 뇌동맥류 연관 논문, 이상원교수 및 이규성교수가 뇌종양과 연관된 연제를 각각 발표하였고, 터키의 연자들이 뇌종양, 뇌출혈 및 척추 연제를 20분씩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자유연제 발표는 초청되어 참석한 한국연자들과 터키 의사들과 함께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치느라 정신없이 진행되었다. 필자는 “Standardization of catheter angiography for training a vascular neurosurge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마친 후 Pamukkale 대학병원 Feridun Acar 교수로부터 나에게 연수를 위해서 clinical fellow 1명을 파견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학회기간 중 터키신경외과 학회에서 한국 참가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환대를 표시하였다. 16일에는 한국 참석자를 위한 특별한 저녁시간이 마련되었고 이곳에서 훌륭한 저녁식사와 함께 터키 고유문화 발리 댄스 등을 보여줬다. 다음날은 갈라 디너에 초청되어 그곳 신경외과 의사들과 우정의 대화를 나누고 야외 파티장에서 함께 노래와 터키 전통 춤을 함께 추고 사진을 주고받으며 친선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우리와는 좀 다르게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며 지중해 연안 특유의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그들만의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

터키의 신경외과 역사가 이제 20년이 좀 지났고 뇌종양과 척추질환에 대한 치료와 연구를 집중하고 있어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회의 발표와 초록도 모두 자국어로만 이뤄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제화 관점에서도 많은 숙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고 한국인과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미국에서 fellowship을 마치고 들어온 젊은 의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향후 터키신경외과 학회는 한국 및 해외 교류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장래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세계신경외과 학회를 비롯한 국제학회에 터키로부터 많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되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향후 2년 뒤 제3차 한국-터키 신경외과 학회가 한국에서 거행되는데 장래의 터키 신경외과 학회와의 인적, 학술적 교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신경병증성 통증과 뉴로매트릭스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 이경석

서론

통증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경병증성(neuropathic) 통증이란 침해수용성(nociceptive) 통증과 심인성(psychogenic) 통증과 다른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의 체감각성 과정의 이상으로 기인된 통증을 말한다.1) 말초신경에서 생긴 통증만을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나누고 중추신경계의 기능이상에 의한 통증을 따로 중심성(central) 통증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조직을 파괴하는 자극이 없이 생기는 통증을 합쳐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2)

통증자극이 있는 통증은 침해수용성 자극을 받은 곳에서 통증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가 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되어 통증을 알게 된다. 그러나 환상통증(幻想痛症: phantom pain)은 통증 신호가 만들어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경보설(fire alarm theory)이나 문조절설(gate control theory)과 같은 통증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였다. 1965년에 문 조절설을 제안했던 Melzack3)은 통증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통증이 생기는 환상통증을 연구한 결과 문 조절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알고, 1989년에 뉴로매트릭스설(neuromatrix theory; 신경망설)을 제안하였다.4) 이 학설과 이 학설에 근거한 치료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1. 감각, 말초신경, 그리고 뇌

모든 감각은 해당하는 감각수용체를 통해 전기신호로 바뀌고, 이 전기신호를 말초신경이 중추신경으로 전달한다. 뇌는 전달된 말초신경의 전기신호를 낱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여 해당 대뇌피질로 보내 알게 된다.5-7) 새로 들어온 정보를 유전적 정보와 과거 경험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분석하고, 각 감각에 회로애라의 상응하는 의미를 주어 새로운 감각으로 가공한다. 이렇게 가공된 감각이 새로운 정보가 되어 뇌에 전해지며, 뇌는 이 정보로 세상을 알고, 새 정보에 의해 행동으로 반응하거나, 정보를 기억하거나, 또는 버리기도 한다.5-8)

말초신경이 살아 있더라도 / 뇌가 없으면 / 말초신경으로 들어 온 온갖 신호는 / 뇌로 전해지지 못하고 / 뇌가 알지도 못하며 / 결국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과 같다.

말초신경이 이미 죽어 없어져 / 모든 감각을 모조리 차단해도 / 뇌가 있으면 / 뇌는 옛날 말초신경을 통해 얻었던 온갖 정보를 그대로 기억하여 / 그 때의 감각과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 모든 감각이 그대로 살아난다.

모든 감각은 / 말초신경을 통해 들어오지만, / 말초신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 말초신경으로 들어온 신호를 / 뇌에서 신경서명이라는 일정한 감각분석틀로 걸러서 / 몇몇 특정한 감각으로 분류하여 수용한 것이다.

신경서명은 타고 난 것이기도 하지만 / 살면서 바뀌기도 하는데, / 첫 인상을 기억하고, / 첫 입맞춤을 기억하며, / 처음 본 해돋이를 기억하여 / 모두 다 해당하는 신경승인으로 기억 속에 저장했다가 / 삶의 순간마다 들어오는 온갖 정보들을 / 삶의 경험만큼 다양한 틀로 걸러서 / 독특한 감각과 감정으로 해석하고 인식하여 수용한다.

2. 분노와 통증

통증의 강도는 불안, 우울, 그리고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 특성이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9, 10) 어린 시절 끔찍했던 추억은 감각 분석들을 왜곡시켜 어른이 되어 겪는 건디기 어려운 일들을 모두 아픔으로 만든다.11-13) 특히 억압된 분노는 만성 통증 환자에서 흔하며, 분노나 적대감의 억압은 적응부전이나 통증이나 증상의 악화나 과장과 관련이 있다.14-16) 화가 나는데, 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풀지 못하면, 그 화가 자신을 괴롭혀 통증이 된다.

별것도 아닌 줄은 알지만 / 삼키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게 외려 부화를 둔군다. / 어쩔 수 없이 생긴 화라면 / 보푸라기 하나라도 태워 버리거나, / 정녕 아무 것도 태우지 않으려거든 / 얼른 꺼버릴 일이다. /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 그대로 가슴에 담고 끄끄거리면, / 억눌린 화가 내 속을 다 태워 / 내 가슴을 숯 더미로 만든다. / 밖으로 터뜨린 분노는 화가 되지만, / 억누른 분노는 아픔이 된다. / 아픔은 상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상처 난 마음이 불을 질러 만든다.

3. 정보 왜곡과 환상통증

통증도 통각수용체에서 바뀐 전기신호가 말초신경을 통해 중추신경으로 전달되는데, 대부분 불쾌한 감정이 더해져 가공되며, 이렇게 가공된 감각이 고통이 되고, 이 정보에 의해 신음소리를 내는 통증행동을 하게 된다. 때로 침해수용성 통증이 아닌 다른 감각이 감각분석체에서 잘못 가공되면 처음 주어진 감각과 다른 정보가 만들어지기도 하여 이질통(allodynia)이 생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신호가 없어도 스스로 나쁜 정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날카로운 소리가 가슴을 찢고 / 스치는 바람이 살을 에는 비수가 되는 것은 / 소리나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 뒤틀린 내 감각분석체가 공포와 불안과 아픔을 부여한 까닭에 / 원래의 감각이 아니라 뒤틀린 감각으로 뇌에 전해져 / 가슴을 찢고 살을 에게 만든다.

소리가 없어도 가슴이 찢어지고, / 바람이 불지 않아도 살이 찢기는 건 / 가슴이나 살에 병이 있는 게 아니고, / 신경에 병이 생긴 것도 아니며, / 뒤틀린 감각분석체, 바로 병든 뇌의 짓이다. / 이제 / 죄 없는 신경을 붙잡아 신경병증(neuropathic)이라 몰아 부치지 말고 / 그 뒤에 숨어 있는 뒤틀린 뇌를 찾아 뇌병증(cerebroathic)이라고 제대로 말하자.

4. 뉴로메트릭스설에 따른 치료

문 조절설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화재경보설에 의한 통증전달경로의 차단이 주요 통증치료 방법이었다. 말초신경을 차단하고, 자르고, 척수를 비롯하여 뇌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경 부위를 파괴하였으나, 통증을 제거하지 못하였다.1, 17)

1960년대 문 조절설이 발표된 이후, 통증치료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다양한 방법의 자극이 새로운 방법으로 대두되었다.5) 예전처럼 신경전달경로의 한 부분을 파괴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부위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많은 치료가 바뀌었지만, 통증이 모두 사라지는 않았다.

이제 문 조절설을 제안했던 당사자에 의해 문 조절설이 파기되고,6) 통증의 발생기전에 대한 새로운 학설이 발표된 지 20년이 되었다. 이미 새로운 학설은 새로운 방법으로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 학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만성 통증은 손상이나 염증 또는 어떤 병리에 의해 생겨나 뇌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진 신경 그물망에 의해 뇌가 만든다는 사실이다.7)

아픔이 말초신경을 통해 뇌로 전해지는 줄로만 알았던 의사들은, / 신경만 자르면 통증이 없어질 줄 알았다. / 수많은 진통제와 신경차단으로 / 통증전달 물질을 줄이거나 / 통증이 전해지는 길을 막거나 잘랐다. / 가끔 통증이 줄거나 사라지기도 했지만, / 자르고 잘라도 기어코 되살아나는 독한 통증에 무릎을 꿇었다. / 다른 신경을 자극하면 통증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 신경 자극이란 새로운 무기로 전쟁을 하는데, / 절단이란 단순한 전략만으로 싸울 때 보다는 / 자극이란 전술로 더러 이기기도 했지만, / 장기전 이 되면 또 다시 참패하고 말았다.

통증이란 / 뇌로 전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 뇌가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으로, / 뇌가 없으면 통증도 없다고, / 통증의 비밀을 새로 밝힌 뒤에도 / 빼놓아진 뇌는 내버려 두고 / 하수인에 불과한 신경을 족치느라 여념이 없다. / 화재경보설은 뉴턴과 함께 사라졌고, / 문 조절설은 아인슈타인과 함께 물러났다. / 문 조절설을 제안했던 뿔작 스스로 문 조절설을 버리고 신경망설을 제안한 지 이십년이 넘도록 / 왜 우리나라 통증전문가들은 문에 걸려 / 문턱을 넘어서질 못하는가? / 통증을 알려거든 뇌부터 알아라!

절단된 팔다리의 통증을 거울을 통한 정상 팔다리의 운동으로 치료한 소위 거울치료나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가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대두되었다.18-20) 왜곡된 뇌의 감각분석틀을 바로 잡는 방법으로 뇌를 훈련 또는 학습하는 방법에도 관심이 필요하리라 본다.

고 찰

해부학적으로 몸과 마음(body-self)의 기본이 되는 것은 대뇌피질과 시상, 그리고 변연계를 연결하는 넓은 신경망(network of neurons)이다. 유전적으로 결정된 연결 연결과 나중에 감각 입력(sensory input)으로 만들어진 신경연결 그물을 통 털어 신경망(neuromatrix)이라고 부른다. 똑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신경망에서 그 자극에 대해 거의 똑같은 정보 분석과 정보 취합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특징적인 유형을 neurosignature(神經署名)라고 한다. 이와 같은 neurosignature는 전체 신경망의 연결 유형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어떤 종류의 감각은 특정 부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어진 neurosignature는 감각신경중심(sensient neural hub)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달된다. 감각신경중심은 온 몸을 통해 끊임없이 들어오는 감각을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며, 필요하면 특정 유형의 운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활동 신경망(action neuromatrix)으로 보내기도 한다. 결국 새로운 개념으로 파악한 신경계는 ①몸-마음을 연결하는 신경망, ②반복적인 정보 분석과 취합으로 만든 neurosignature, ③neurosignature를 끊임없이 인식하는 감각신경중심, 그리고 ④목적하는 유형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신경망을 활성화 하는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

우리 몸에는 아주 많은 감각 수용체들이 있는데, 이 수용체에서는 시시각각 많은 양의 정보를 뇌로 보낸다. 촉각은 물론, 시각, 청각, 후각, 평형감각, 등 수 많은 정보가 실 틈 없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 정보를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느끼고 아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이 수많은 정보들을 일정한 유형으로 받아들이고 다루어서, 많은 정보를 의식의 수준에 이르기 전에 처리하는 한편, 수없이 반복되어 이미 익숙한 정보가 아닐 때에는 그 동안의 감각 경험과 정보를 비교하고 검토하여 독특한 neurosignature로 만들어 감각신경중심으로 보내고, 이곳에서 그 감각을 느끼고 인지하는 한편, 일부는 바로 활동 신경망으로 보내 특정 유형의 동작을 하게한다. 통증각이 입력되면 바로 통증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식별, 감정-동기, 평가-인식, 등의 신경망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조율) 다음 최종적으로 느끼게(知覺) 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화병은 분노의 억제로 발생하는 병으로 분노 증후군(anger syndrome)으로도 불린다. 화병은 배우자, 시부모와의 관계, 가난과 고생, 사회적 좌절 등 성장 이후 또는 결혼 이후 외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속상함”, “억울함”, “분함”, “화남”, “미움”, 등으로 대표된다. 이 감정 반응들은 환자 자신이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화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그러므로 화병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 곧 적개심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그 적개심의 뿌리가 어린 시절에 각인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확대 재생산한다. 즉 과거에 생긴 반복되는 감정(적개심)에 얽매어 현실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통증에 대한 신경망 학설의 요점은 데카르트처럼 통증을 손상, 염증 또는 다른 조직 병리로 생긴 감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수많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감각만이 아니라 감정과 인식이 어우러져 만드는 여러 차원의 경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몸을 다치면 바로 통증 신호가 전달되어 통증을 느낀다고 생각했던 화재경보설이 문 조질설을 거치고, 다양한 해석과 함께 발전하더니, 결국 신경행렬 학설, 곧 통증은 뇌가 만들어내는 지각이라는 학설에 도달하였다. 통증 신호가 뇌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통증이란 없는 것이고, 설혹 뇌에 전해졌더라도 뇌가 그걸 통증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통증이 아니며, 아무런 자극이 없더라도, 뇌 속에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낀다면 통증은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세상만사가 다 인식하기 나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결 론

뇌가 없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면 통증도 없다(無腦無念, 無念無識, 無識無痛). 반대로 몸이 없어도 뇌가 있으면, 뇌가 아는 모든 증상을 뇌 스스로 느끼고 만들어 낼 수가 있다. 통증은 말초신경만으로는 만들 수 없고, 수동적으로 전해지기만 하는 말초 감각도 아니다. 통증은 가장 발달된 신경조직인 뇌가 가진 모든 정보를 이용해 뇌가 만들어낸 새로운 정보다. 만성 통증은 신경의 병이 아니라 뇌의 병이며,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경이 아니라 뇌를 치료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이경석. 통증의 이해. 서울, 군자출판사, 2005
- 2) 서정규. 신경병증성 통증. 대한신경과학회 춘계보수교육 1:15~22, 2000
- 3) Melzack R, Wall PD. Pain mechanisms: a new theory. *Science* 150(699):971-979, 1965
- 4) Melzack R. Labat lecture. Phantom limbs. *Reg Anesth* 14:208-211, 1989
- 5) Burchiel K. Pain: General historical considerations. In Winn, HR (ed):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5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2004, pp2913-2916
- 6) Melzack R. From the gate to the neuromatrix. *Pain* 6:S121-126, 1999
- 7) Melzack R. Evolution of the neuromatrix theory of pain. The Prithvi Raj Lecture: presented at the third World Congress of World Institute of Pain, Barcelona 2004. *Pain Pract* 5:85-94, 2005
- 8) 이경석. 통증에 대한 신경행렬설의 시적 해설. *통증* 15:52-55, 2005
- 9) Bonica JJ. Evolution and current status of pain programs. *J Pain Symptom Manage* 5:368-374, 1990
- 10) Keefe FJ, Rumble ME, Scipio CD, Giordano LA, Perri LM. Psychological aspects of persistent pain: current state of the science. *J Pain* 5:195-211, 2004
- 11) Pang D, Jones GT, Power C, Macfarlane GJ. Influence of childhood behaviour on the reporting of chronic widespread pain in adulthood: results from the 1958 British Birth Cohort Study. *Rheumatology (Oxford)* Jul 7. [Epub ahead of print], 2010
- 12) Bruehl S, Chung OY, Burns JW. Anger expression and pain: an overview of findings and possible mechanisms. *J Behav Med* 29:593-606, 2006
- 13) Burns JW, Quartana PJ, Bruehl S. Anger inhibition and pain: conceptualizations, evidence and new directions. *J Behav Med* 31:259-279, 2008
- 14) Bruehl S, Chung OY, Burns JW, Biridepalli S. The association between anger expression and chronic pain intensity: evidence for partial mediation by endogenous opioid dysfunction. *Pain* 106:317-324, 2003
- 15) Burns JW, Bruehl S, Quartana PJ. Anger management style and hostility among patients with chronic pain: effects on symptom-specific physiological reactivity during anger- and sadness-recall interviews. *Psychosom Med* 68:786-793, 2006
- 16) Janssen SA, Spinhoven P, Brosschot JF. Experimentally induced anger, cardiovascular reactivity, and pain sensitivity. *J Psychosom Res* 51:479-485, 2001
- 17) 이경석. 통증을 알려거든 뇌부터 알아라! *의료감정* 5:21-23, 2008
- 18) Ramachandran VS, Rogers-Ramachandran D. Synaesthesia in phantom limbs induced with mirrors. *Proc R Soc Lond B Biol Sci* 263:377-386, 1996
- 19) Ramachandran VS, Altschuler EL. The use of visual feedback, in particular mirror visual feedback, in restoring brain function. *Brain* 132:1693-1710, 2009
- 20) Murray CD, Pettifer S, Howard T, Patchick EL, Caillette F, Kulkarni J, Bamford C. The treatment of phantom limb pain using immersive virtual reality: three case studies. *Disabil Rehabil* 29:1465-1469, 2007
- 21) 윤영환, 이소희, 최종혁. 화병과 주요우울증 환자의 신경인지기능. *생물정신의학* 12:181-188, 2005

제54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일정

일 정		시행사항
2010. 6. 29 (화)	07:00	고시실행위원회(시험계획 수립)
7. 8 (목)	15:00	고시위원회(시험계획 확정)
7. 15 (목)	07:00	의협 상임이사회 인준
7. 16 (금) ~ 30 (금)		시험시행 승인 요청 및 승인(보건복지부)
9. 6 (월), 13 (월)		시험시행 공고(의협신문 2회 공고)
10. 11 (월) ~ 15 (금)		원서교부(대한의사협회) -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10. 18 (월) ~ 22 (금)		원서접수(학회사무실) - 서울시 중구 순화동 151 포스코 더샵 오피스 B동 402 호
10. 25 (월) ~ 11. 5 (금)		응시자격 예비심사(학회)
11. 8 (월) ~ 18 (목)		응시자 서류정리 및 최종심사 준비
11. 16 (화)	07:00	고시실행위원회(응시자격심사 / 시험위원선정)
11. 30 (화)	07:00	고시위원회
12. 6 (월) ~ 10 (금)		수험표 교부(학회 사무실)
12. 13 (월) ~ 16 (목)		사진인쇄
2011. 1. 10 (월) ~ 13 (목)		1차 시험 문제선택 및 인쇄
1. 13 (목)	09:00	1차 시험 시행(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1002호-1003호)
1. 14 (금) ~ 19 (수)		1차 시험 채점
1. 20 (목)	12:00, 14:00	1차 시험 합격자 사정회, 합격자발표
1. 19 (수) ~ 28 (금)		2차 시험 문제선택 및 인쇄
1. 21 (금) ~ 22 (토)		2차 시험 시행(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 2층, 3층)
1. 22 (토) ~ 31 (월)		2차 시험 결과제출 ※성적작업 완료시 바로 제출
1. 24 (월) ~ 2. 6 (일)		2차 시험 성적검산
2. 8 (화)	12:00, 14:00	2차 시험 합격자 사정회, 합격자발표
2. 9 (수) ~ 16 (수)		최종합격자 서류정리 및 서류심사
2. 18 (금)		시험시행 결과보고 및 전문의자격인정 요청
3월		전문의자격증 교부 (학회사무실)

보직변경

임영진 (경희대) 병원장 취임(2010.05. 04)

대한의사총구연맹 초대회장취임(2010.05.01)

이봉암 (경희대) 송파구 문화원 원장 취임(2010.09.06)

오랜 기간 동안 학교생활과 병원생활에 뿌리를 두고, 진료에만 열중한지 이제는 3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노년을 멋지게 보내기 위해 보람 있었던 진료업무 외에 이제는 의료외적으로 가치있는 삶을 누리고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문화사업에 봉사하기 위해 서울 27개구에서 가장 큰 인구 70만을 초과하는 송파구 문화원장으로 2010년 9월에 취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몸담았던 경희대학교의 교사가 문화세계의 창조임에 감명되어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지역사회 문화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문화원장직을 겸직하고 현재 아주 바쁘게 문화원 고유 목적사업인 서화, 미술, 전통놀이, 음악, 무용, 어르신문화, 향토문화, 학습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삭막한 의료업무 외에 가치있는 삶을 누릴수 있는 문화사업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을 바랍니다.

박봉진 (경희대) 신경외과과장(2010.06.01)

한대희 (서울대 명예교수) 국립중앙의료원 뇌심혈관센터장 취임(2010.06.15)

백민우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병원장 취임(2010.09.01)

이호국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진료 부원장 취임(2010.09.01)

문재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과장 발령(2010.09.01)

이상형 (서울대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과장 발령 (2010.09.01)

심찬식 (청담우리들병원) 병원장 발령

최기영 (청담우리들병원) 신경외과과장 발령

정영균 (인제대 부산백병원) 교수 발령(2010.04.01)

표세영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교수 발령(2010.04.01)

도종웅 (21세기병원) 경북대학교 재경동창회 총회장으로 선임(2010.04)

박동혁 (고려대 안암병원) 조교수 발령(2010.03.01)

정 신 (전남대학교병원)

제6대 신경외과과장 발령(2010.03.27)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기획실장 발령(2010.03.27)

정희원 (서울대병원) 병원장 취임(2010.06.01)

김동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장 취임(2010.06.08)

정천기 (서울대병원) 주임교수 및 과장 취임(2010.07.15)

전병찬 (제3대 고신의대복음병원장)

- 7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초대병원장 부임.

- 전공 (뇌종양, 척추종양, 사이버나이프로봇 뇌 및 척추수술)

- 전화 : 051-720-5098, 휴대폰 : 010-3840-2517

- e-mail : minieyebrow@naver.com

- 주소 : 619-95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40

근무지변경

이기찬 :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장 (2010.04.01)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BD 7층,

Tel.02-3702-8640, Fax.02-3702-8675)

조경기 :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2010.10.04)

양문술 : 한양대 구리병원

신영귀 : 삼성신경외과의원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153-35 (3층) / Tel.031-274-7585

정대영 (경북대병원) 척추 fellow (2010.05.01)

신동성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임상강사 (2010.08.30)

해외연수

• 이장보 (고려대 안암병원)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간 Toronto 대학 M. Fehlings 연구소에서 만성 척수압박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귀국

• 문경섭 (전남대 화순병원) 미국 시카고 대학 연수 (기간: 2010. 7. 1. ~ 2011. 6. 30.)

• 황선철 (순천향대 부천병원) 2010년 8월 24일 미국 Rochester에 위치한 Mayo Clinic에 functional neurosurgery 장기 연수를 위하여 출국하였다. 황선철 교수는 부천병원에서 뇌종양과 뇌내시경수술, 경막하 혈종연구 등의 활발한 임상 및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Mayo clinic에서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를 1년간 병행하기로 하였다.

• 김정은 (서울대병원) 하버드의대 장기연수 후 귀국

• 김기정 (분당서울대병원) 장기연수(피츠버그대학)

• 이진석 (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USA) - 2009. 9 ~ 2010. 9

• 박동혁 (고려대)

2008.3~2010.2 University of South Florida, Center for Aging and Brain Repair

회원경조사

박형천 (인하대) 장녀 결혼 (2010.9.11)

김무성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친상 (2010.08.23)

이원희 (밀양 한솔병원) 결혼(2010.12.26 (일) 13:00 부산 그랜드 호텔 스카이홀)

한용표 (연세대 원주의대) 2010년 8월 31일 정년퇴임.

연세신경외과의원 개원(원주시 문막읍 소재)

정희원 (서울대병원) 차녀 결혼(2010.09.25)

최창락 (가톨릭대 명예교수) 차남 결혼(2010.09.05)

하영수 (관동대 명지병원) 장남 결혼(2010.10.03)

양지호 (대전성모병원) 부친상(2010.04.05)

백민우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병모상(2010.07.12)

곽승원 (에스메디크리닉) 부친상(2010.07.28)

개업

• 자카르타 우리들병원 (2010.07.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히드 사히르만 메모리얼 병원'내에 우리들 국제 척추병원 개원. 이준대 원장을 포함한 4명의 인도네시아 척추전문가가 진료 및 수술 시행

• 두바이 우리들병원 (2010년 10월 개원 예정)

회원소식

문태준 (명예회장)

전세계의사회 회장(WMA), 대한의사협회(KMA) 명예회장 자격으로 국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 7월초에 일본외과학회(JMA)의 회장단과 의사의 권익과 처방전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

• 9월 16일~19일까지 말레이시아의 Kuala Lumpur에서 개최된 아시아대양주 의사연합회의에 참석해서 의사와 약사의 관계와 환자의 처방을 위한 권리 등에 관해서 강연하였음(11개국 참석)

• 10월 12일~19일 캐나다 Vancouver에서 개최될 세계의사회(총회)에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참석 예정임.

P Photo Report



➤ 제 28차 춘계학술대회 만찬공연

The 50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 춘계학술대회 강의장



신임전공의 워크샵 단체사진 ←



→ 워크샵 기념촬영

Photo Report



➔ 초청연자들과 함께

The 50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이사회 ←



→ 이사회이후 단체사진-누리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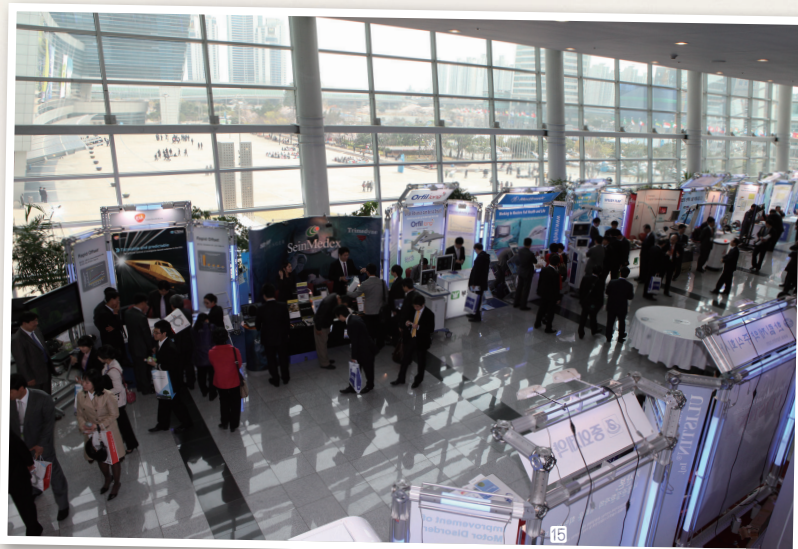
전야제 ←



Photo Report



▲ 제1회 한-중신경외과학회



▲ 춘계학회 전시

The 50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치매보수교육단체사진 ←



→ 통증 보수교육 단체사진



← 학술대회 후 기념촬영